

청소년 진로 의사결정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김 대선 강 지 연 정 재 회 김 기 년 탁 진 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의사결정검사 개발을 위해 기존 문헌 연구 및 중·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4개 요인을 도출하고, 130문항을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한 예비문항을 중·고등학교 청소년 316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 분석과 문항 검토 과정을 통해 9개 요인과 53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 분석된 문항에 보완된 문항들을 추가하여 9개 요인, 69문항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 233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9개 요인 61문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개발된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전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 1,206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도, 구성 개념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9개 요인 34문항을 완성하였다. 신뢰도 및 요인분석 결과 적합한 수준의 신뢰도와 9개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관련 타당도 분석에서는 진로만족, 진로 의사결정 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진로불안감, 학업성취도를 준거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준거관련 타당도 분석결과 진로 의사결정 요인과 5개 준거는 정적 및 부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진로 의사결정, 청소년 진로 의사결정검사, 진로만족, 신뢰도, 구성 개념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탁진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Tel : 02-940-5424, E-mail : tak@kw.ac.kr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연속된 과정은 생애 전반에 걸쳐 무수히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점심 식사의 메뉴를 고르는 문제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택이 가능하지만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Super(1957)는 청소년의 진로발달 단계를 구체적인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준비하는 탐색기로 정의하였으며, 특히 이 시기에는 직업선택에서부터 대학 및 학과 선택, 상급학교 진학, 계열 선택 등의 진로의사결정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모호함으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단순한 진로 선택을 넘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 개인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허정철, 2009).

청소년기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일련의 결정들이 시작되며, 대학진학, 취업, 전공 선택 등의 결정들은 그 개인의 직업은 물론 심리적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Mann, Harmoni, & Power, 1989). 이러한 진로 결정은 마주하게 될 미래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그 과정이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특성과 학과 및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상호 비교하며, 그 중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선택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고 학교나 직업에서의 만족을 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진로의사결정은 청소년기 진로발

달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하기에 학교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진로와 직업」 과목은 4개의 영역과 14개의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네 번째 영역이 ‘진로의사결정 및 계획’이며, 그 하위에 2개의 내용 요소가 담겨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과목 또한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번째 영역이 ‘진로의사결정’이며, 그 하위에 4개의 내용 요소를 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서도 중·고등학교 공통으로 4개의 대영역과 8개의 중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IV. 진로디자인과 준비’의 대영역에 ‘1.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이라는 하위 중영역이 있으며, 여기에 2개의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처럼 학교 진로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종합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전략을 가르쳐 주어 올바른 진로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은 진로상담과 진로지도의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로상담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이렇듯 중요한 청소년기 진로의사결정 역량 개발을 목표로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을 알아보고, 해당 유형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교 진로교육은 이루어져 왔다.

진로진학상담교사나 진로코치(상담자)의 주요 역할은 학생들이 더 좋은 진로의사결정을 하도록 다양한 개입을 통해 인도하고 안내하는 데 있다(Gati & Tal, 2008). 특히 개인의 진

로의사결정 유형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으로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지도 및 진로코칭(상담) 과정에서 진로의사결정에 접근하는 개인의 독특한 방식을 특징짓는 것(Phillips & Paziienza, 1988)은 의사결정 과정을 촉진하고(Phillips & Jome, 2006), 더 좋은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Phillips & Paziienza, 1988). 이와 같은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접근 방식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 행동의 전형적인 패턴을 특징짓는 매우 안정적인 성격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Driver, 1979; Harren, 1979). 의사결정 유형의 이전 연구는 의사결정 과업에 접근하는 가장 지배적인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소수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데 있었다.

Harren(1979)은 진로의사결정을 개인이 의사결정의 필요한 과제를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는 개인의 특징적인 방식이라 정의하며,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진로의사결정유형검사(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번안 수정되어 사용되었다. Scott과 Bruce(1995)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을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학습된 습관적인 반응 패턴이라고 정의하며 Harren이 제시한 유형에 행동적인 관점으로 재분류하여 즉흥적(spontaneous) 유형을 추가하였다. 최태진(2004)은 Harren이 제시한 유형에 문화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들어 한국 특유의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유형을 추가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진로의사결정 유형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적 성향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설명(Harren, 1979; Jepsen,

1974b; Johnson, 1978, Sagiv, 1999)하거나, 의사결정 상황에서 습관화된 반응 패턴으로서의 성향(Scott & Bruce, 1995)으로 보면서 개인들을 몇 개의 유형들 중 하나로 범주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연구 목적을 위해 가정된 동질 집단으로 개인을 분류하거나 개인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개인의 의사결정 역량을 증진시키기에는 불충분하며, 특정 상황에서 단일 유형 보다는 더 많은 의사결정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볼 수 있다(Gati, Landman, Davidovitch, Asulin-Peretz, & Gadassi, 2010). 단일한 지배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동질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적 접근은 의사결정에서 부분적으로만 개인차를 설명할 뿐이고(Shiloh, Salton, & Sharabi, 2002),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발달을 돕는 방식으로 개인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또한 일차적인 의사결정 유형과 더불어 개인들은 이차적인 유형을 가진다는 주장(Driver, Brousseau, & Hunsaker, 1990)이 있으며, Harren(1979) 또한 하나의 지배적 유형의 특징에 추가로 다른 유형 요인들 또한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Gati 등(2010)은 정보수집(Information gathering),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의 진로의사결정 프로파일을 측정하여 의사결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진로의사결정 유형 모델을 개선하고 정교화 시킨 다차원적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타인과의 역할 관계 측면에서 ‘의존적’(Harren, 1979; Scott & Bruce,

1995)이라고 명명하는 대신 의사결정과정의 각 단계마다 타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정도(자원으로서의 중요한 타인), 부모나 친구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시도하는 정도(권위로서 중요한 타인), 타인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정도(불안을 감소시키는 책임 있는 자원으로서의 중요한 타인)와 같이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특정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별이 가능하다고 기술하였다. 비록 이런 차원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 보이고, 타인에 대한 의존이 가장 지배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다차원적 모델은 중요한 타인의 영향에 어울리는 개인의 태도에 대해 더 개선된 설명이 가능하다.

국내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의사결정 유형의 역할을 확인하려는 연구가 많다. 의사결정 유형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Harren의 의사결정유형 검사를 사용하여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으로 구분하는데, 3가지 유형의 구분 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의사결정유형 척도로는 기존 Harren의 3유형 분류에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의 비교 관점을 첨가하여 상호의존형 진로의사결정 유형 척도를 개발한 최태진(2004)뿐이며, 대부분 외국 척도들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배적인 한 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진로의사결정 유형 검사보다는 개인이 지닌 다양한 진로의사결정 요인들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국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의사결정 척도 개발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진로의사결정

요인이 문화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 진로의사결정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진로의사결정 유형

진로의사결정이란 개인의 진로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정한 증거에 의거 상호 비교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 정의된다(한국진로교육학회, 1999).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방식, 즉 의사결정 유형(decision-making type)이 있다. 의사결정 유형은 의사결정 과정을 인식하고, 이에 반응하는 개인의 특징적인 방식, 혹은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양식(Harren, 1979), 개인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전략(Janis & Mann, 1977), 특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접근하고 결정하는 방식(Arroba, 1978), 의사결정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정미나, 2011)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개인이 의사결정 과업을 지각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선택,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직업 행동에 적용될 때 진로의사결정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며(Harren, 1979), 이는 진로를 탐색해 나가고, 계획하고, 설정하는 등 최종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까지 개인이 취하는 고유한 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정미나, 2011).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inkleage(1968)는 계획적인 유형, 변민하는 유형, 지연형, 마비형, 충동적인 유형, 직관형, 운명론적 유형, 순응형의 8가지

(Dinkelage, 1968; 고향자, 1992, 재인용), Jepsen (1974a, 1974b)은 계획가형과 운명론자형의 2가지, Arroba(1977)는 감정형, 우유부단형, 직관형, 무념형(no-thought), 순응형, 논리형의 6가지, Scherba(1979)는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충동적, 운명론적 유형의 5가지, Johnson(1978)은 정보처리 방식에 따라 체계적/내적, 체계적/외적, 즉각적/내적, 즉각적/외적인 4가지, Harren (1979)은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오늘날 Harren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Harren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형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Gati 등(2010)은 Harren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3가지로 지나치게 단순화되었으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arren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Gati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살펴보았다.

Harren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Harren(1979)의 분류는 합리적 전략의 사용 정도와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으로 구분된다. 합리적 유형은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진로 의사결정을 하며 결정의 책임을 수용한다. 직관형도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지만 합리형처럼 정보탐색이나 논리적인 평가과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과정서적 지각을 사용하며, 비교적 빠르게 진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 의존적 유형은 진로 의사결정의 책임을 거부하고

남에게 전가하며, 사회적 인정을 강하게 추구하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같은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Harren(1979)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연구 결과, 합리형이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제안되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 합리형은 진로준비행동이나 진로탐색행동, 진학준비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운 외, 2009; 장기명, 1998; 홍성욱, 2008). 또한 합리형은 진로성숙도가 높고 진로결정수준이 확고하였다(고향자, 2000; 남숙경 외, 2008; Blustein, 1987).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많은 진로 의사결정 상담 프로그램들은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합리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지영, 2001).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합리형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Chartrand et al., 1993; Phillips, Paziienza, & Walsh, 1984; Phillips & Strohmer, 1982; Rubinton, 1980). Krumboltz(1979)의 연구에서는 직관적 의사결정자들은 합리적 의사결정모형의 훈련을 받은 후 의사결정을 더 잘 내리지 못했으며, Krumboltz 등(1986)의 연구에서 합리적 개입방법은 의존형 의사결정자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합리적 개입방법은 합리형 의사결정자에게, 직관적 개입은 직관형 의사결정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존형은 어떤 개입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Rubinton, 1980). 결국 의사결정자의 특징과 개입의 매칭이 중요하며 의사결정 훈련의 효과는 의사결정자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Mau & Jepsen, 1992). 이러한 맥락에서 합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직관적 접근을 강조하는 의사결정 프로그램이 제안되기도 하였다(Gati, 1986, Mau, 1995).

한편 직관형에 대한 연구들은 비일관된 결과를 보였는데,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과 정적 상관을 갖거나, 부분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김성남과 정철영, 2005, 김나영, 2009, 홍성옥, 2008). 또한 직관형이 적응적인 진로행동이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김송환, 1996; 박진희, 2008; 전경애, 2005; Blustein, 1987; Phillips, Paziienza, & Walsh, 1984; Phillips & Strohmer, 1982)가 있는가 하면, 진로성숙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도 있다(고향자, 1992; 이원창, 2006). 변은주(1999)의 연구에서 직관형은 문제 중심 대처와 감정 중심 대처, 회피적 대처에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이재창과 박미진, 김수리(2005)에서는 직관형이 양립하기 어려운 진로결정수준의 확신성과 미결정 양쪽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의존형은 여러 연구에서 진학준비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홍성옥, 2008), 진로성숙도가 낮고(강호경, 2003; 유순화, 강승희, 윤경미, 2004; Phillips & Strohmer, 1982), 진로결정수준 또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고향자, 2000).

Gati의 진로의사결정 유형

정보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수정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진로선택 과정은 일반적인 의사결정보다 더 복잡할 수 있으며(김수리, 이재창, 2007), 정보가 과도하게 많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 오히려 정보를 무시하게 된다(최선이, 1991). 이에 대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모델에 대한 대안적 모델들이 제안되고 있는데(Gelatt,

1989; Krieshok, 1998; Krieshok, Black, & McKay, 2009; Phillips, 1997; 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이 모델들은 합리성이나 이성, 객관성 보다는 정서나 주관성, 비인지적 요소들을 강조하며 진로상담을 원하는 내담자에게 보다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Krieshok 등(2009)은 적응적인 진로결정을 위해서는 이성뿐만 아니라 직관 또한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Phillips(1997)도 이성, 논리, 객관성, 독립성을 강조하는 합리적 모델과 의사결정과정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맥락을 강조하고 개인의 직관이나 정서, 주관성, 상호의존성을 중요하게 보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정보가 너무 많아 일일이 고려하기가 어렵거나 신속히 결정해야 할 때, 또는 결정상황이 불확실 할 때 직관적 결정이 오히려 효과적이기 때문에(Sadler-Smith & Shefy, 2004), 오늘날 직관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정미나, 2011). 그리고 Harren의 의존형을 ‘다른 사람과 문제를 상담하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 주려는’, ‘결정의 책임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한 결과, 다른 사람과 진로문제를 상의하는 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Gati et al., 2010).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직업 선택 시 중요한 타인이나 주위환경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Di Fabio & Bernaud, 2008; Sanz de Acedo Lizarraga, Sanz de Acedo Baquedano, Soria Oliver, & Closas, 2009). 이들 연구들은 Harren의 3가지 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형이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우며, 의존형도 좀 더 세분화될 수 있고,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

해준다.

최근 개인을 하나의 의사결정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을 한 가지 유형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다른 의사결정 방법을 무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Mau, 1995), 연속점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주장이 있으며(유순화 외, 2004; Phillips & Strohmer, 1982),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Driver, Brousseau, & Hunsaker, 1990), 의사결정 전략들은 결정의 종류, 상황 및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서우석, 1994).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개인차에 관한 이전 연구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하는 지배적 특성에 기초하여 개인들을 소수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데 반해, Gati 등(2010)은 이러한 유형론적 접근의 대안으로 여러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적 프로파일 접근을 제안하였다. Gati 등(2010)은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이전 연구들을 분석하여 정보 수집(Information gathering), 정보 처리(Information processing),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노력 정도(Effort invested), 미루기(지연) 정도(Procrastination), 최종 결정 속도(Speed of making the final decision), 타인 자문(Consultation with others), 타인 의존도(Dependence on others), 타인 만족(Desire to please others), 희망 직업 포부(Aspiration for an ideal occupation), 타협 의지(Willingness to compromise) 등 11개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직관(intuitive)을 추가하여 12개 차원의 척도를 사용하였다(Gati, Gadassi, Mashiah-Cohen, 2012).

개인은 특정한 상황에서 여러 의사결정 전략의 조합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Singh &

Greenhaus, 2004), 개인들은 서로 다른 의사결정에 직면할 때 다른 전략들을 선택한다(Payne, Bettman, Johnson, 1992). 특정 상황에서 하나의 유형 보다 더 많은 것을 사용하고, 의사결정에 따라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면,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진로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과잉단순화일 것이다. 의사결정 방식은 다차원적이어서 비록 지배적인 특성에 따라 동일한 유형일지라도 많은 차원들에서 다를 수 있다. 또한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안정적인 성격적 성향이라는 가정에 근거하는데, 진로의사결정 프로파일은 의사결정 행동에 미치는 성격과 상황적 영향 모두를 포함한다. 이에 본 검사는 개인을 합리형, 의존형, 직관형 등 하나의 유형으로 단순화하기보다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문화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의 요인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모두 측정하는 진로의사결정 검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1. 예비문항 개발

연구 1은 청소년 진로의사결정검사 예비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문헌 및 연구들을 고찰하여 외국의 12개 차원의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프로파일로 분류한 것과 기존에 사용된 3가지 의사결정유형으로 분류한 척도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이 청소년들의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해 갖는 중요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요인과 문항을 개발하였다.

방 법

청소년들이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를 알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 중·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27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04명 등 총 231명에게 개방형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방형 설문에서 물어본 내용은 요즘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주로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직업)이나 진학하고 싶은 학과를 선택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지, 학생들이 진로결정을 위해 스스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이었다.

결 과

전문가 집단에서 80개 문항, 중학생들로부터 557개 문항, 고등학생 집단으로부터 359개

표 1. 14개 청소년 진로의사결정검사 14개 요인 및 예비 문항 수

요인	요인 설명	예비 문항수
타인만족	진로의사결정 시 가족이나 부모 등 타인의 기대나 희망사항을 먼저 고려	10
타인자문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타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정도	10
정보수집	진로의사결정 시 교사나 전문가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	10
유행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멋있거나 인기가 있는 진로를 선택	9
직관	진로의사결정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 선택	7
외재가치 (돈, 성공, 명예)	진로의사결정 시 연봉이나 안정성, 출세 등을 고려	8
내재가치 (행복, 정의, 이타)	진로의사결정 시 나라나 사회에 도움을 주거나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	10
타협의지	진로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닦혔을 때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 유연하려고 하는 정도	10
미루기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시작을 하거나 진전을 하는 것을 피하거나 지연시킴	9
적성/흥미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는 진로를 선택	10
속도	개인이 수집되고 정리된 정보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의 정도	10
회피	진로의사결정을 어려워하여 최대한 미루고 피하는 것	10
운명	운명이 진로의사결정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며 미래진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	10
노력정도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투자하는 시간과 정신적 노력 정도	7

문항 등 모두 990개 문항을 얻었으며, 이 문항들을 토대로 중복된 문항들을 제외하고 유사한 내용의 문항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는 총 6차에 걸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1차에서 25개, 2차에서 16개, 3차에서 15개, 4차에서 14개, 5차에서 11개 요인으로 축소되었으며, 마지막 6차에서 11개 요인으로 축소되었다. 이들 11개 요인과 개방형 1번 문항인 ‘요즘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주로 하고 있는지’를 통해 도출된 3개 요인을 추가하여 총 14개 요인으로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14개 요인 명, 요인 설명 및 각 요인에 해당하는 예비 문항 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2. 1차 예비조사

연구 2는 개방형 설문을 통해 만들어진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절차

본 연구의 예비조사를 위해 서울 소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31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316명 중 남학생이 251명(79.4%), 여학생이 65명(20.6%)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30개 문항에 대한 평정 결과에 대해 아래

의 기준을 토대로 문항을 제거하였다. 첫째, 신뢰도 분석에서 신뢰도 증가가 큰 문항을 우선적으로 제거했다. 둘째, 내용상 다른 요인들과 중복되거나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문항들을 제거한 후 선정하였다.

결 과

개발된 예비문항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해당 문항이 제거될 경우 신뢰도가 높아지는 문항을 우선적으로 삭제하였으며, 구성개념 타당도 분석을 위해 예비 집단에 대해 직각회전인 베리맥스 기법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4개 요인을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문항들이 여러 요인들과 중복되게 관련되어 있어서 요인구조의 해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항들을 제거하면서 이에 따라 요인 수도 다양하게 지정하여(14개에서 9개 까지) 요인분석을 여러 번 실행한 결과 53문항으로 이루어진 9개 요인구조의 해석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에서의 14개 요인 중에서 노력정도, 속도, 타협의지 요인은 제외되었으며, 미루기 요인의 일부 문항은 회피 요인으로 타인자문의 일부 문항은 정보수집 요인에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선정된 53개 문항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95로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표 2에서 보듯이 회피 요인의 Cronbach alpha값이 .928, 운명 요인의 Cronbach alpha값이 .905로 높게 나왔으며 그 외의 다른 모든 요인이 .8이상이고, 전체 검사 문항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표 2. 문항 삭제 후 신뢰도(1차 예비조사)

요인	신뢰도 계수	항목수
내재가치	.865	5
외재가치	.817	5
운명	.905	6
유행	.839	6
적성흥미	.889	7
정보수집	.804	6
직관	.828	4
타인만족	.886	6
회피	.928	8

으로 판단했다. 일부 요인에 포함된 문항수가 작아서 9개의 각 요인별로 문항을 1개에서 5개씩을 추가하여 2차 예비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3. 2차 예비조사

연구3은 1차 예비조사 결과 개발된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최종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예비조사를 위해 서울 소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23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보면, 전체 233명 중 남학생이 116명(49.8%), 여학생이 117명(50.2%)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은 전체 233명 중 중학생이 39명(16.7%), 고등학생이 194명(83.3%)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다소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 과

1차 예비조사에서 9개의 각 요인별로 분석된 문항에 추가적으로 보완된 문항들을 포함하여 개발된 총 69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해당 문항이 제거될 경우 신뢰도가 높아지는 문항을 우선적으로 삭제하였으며, 구성개념 타당도 분석을 위해 예비 집단에 대해 직각회전인 베리맥스 기법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9개 요인을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9개 요인구조의 해석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문항 삭제 후 신뢰도(2차 예비조사)

요인	신뢰도 계수	항목수
내재가치	.866	7
외재가치	.854	9
운명	.668	5
유행	.758	5
적성흥미	.847	7
정보수집	.720	6
직관	.814	8
타인만족	.888	6
회피	.914	8

최종 선정된 61개 문항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표 3에서 보듯이 회피 요인의 Cronbach alpha값이 .914, 타인만족 요인의 Cronbach alpha값이 .888로 높게 나왔으며 그 외의 다른 모든 요인이 .6이상이고, 전체 검사 문항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토대로 전체 9개 요인으로 구성된 61개 문항을 본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4. 본조사

2차 예비조사에서 도출된 9개 요인, 61개 문항으로 청소년 진로 의사결정검사를 구성하고 이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성개념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9개 요인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표집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차타당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Gati 등(2012)의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준거관련타당도 분석을 위해 학업성취도, 진로불안감, 진로만족, 학교생활만족, 진로 의사결정만족 등의 준거변인을 사용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절차

본 검사를 위해 전국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1,2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

하였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먼저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612명(50.7%), 여성이 594명(49.3%)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고등학생이 629명(52.2%), 중학생이 577명(47.8%)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약간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538명(44.6%), 경기 및 인천 지역 243명(20.1%),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대전, 세종시 지역 114명(9.5%),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울산, 부산 지역 144명(11.9%),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광주 지역 54명(4.5%), 제주특별자치도 113명(9.4%)이다. 교차타당도 분석을 위해 본 검사의 실시인원 1,206명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들을 제외한 총 111명을 임의의 두 집단(표집 1: 555명, 표집 2: 556명)으로 홀수, 짝수 번호를 구분하였다. 먼저, 표집1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276명(49.7%), 여성이 279명(50.3%)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고등학생이 293명(52.8%), 중학생이 262명(47.2%)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약간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253명(45.6%), 경기 및 인천 지역 104명(18.8%),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대전, 세종시 지역 55명(9.9%),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울산, 부산 지역 64명(11.5%),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광주 지역 26명(4.7%), 제주특별자치도 36명(6.5%)이다. 다음으로, 표집2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277명(49.8%), 여성이 279명(50.2%)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고등학생이 294명(52.9%), 중학생이 262명(47.1%)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약간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253명

(45.5%), 경기 및 인천 지역 104명(18.7%),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대전, 세종시 지역 55명(9.9%),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울산, 부산 지역 64명(11.5%),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광주 지역 27명(4.9%), 제주특별자치도 36명(6.5%)로 나타나 표집1과 표집2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측정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문항은 학업성취도를 제외하고 리커트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Gati 등(2012)의 진로의사결정 요인은 정보수집, 정보처리, 통제소재, 노력투자, 자연행동, 결정속도, 타인자문, 타인의존, 타인만족, 이상직업, 타협의지, 직관사용 등의 12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Gati 등(2012)이 개발한 것으로 각 척도별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3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집 1의 Cronbach alpha는 .86이었으며, 표집 2의 Cronbach alpha는 .88이었다.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자기 성적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상위, 중상위, 중위, 중하위, 하위'로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진로불안감은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정이, 이영선, 박정민(2003)이 개발한 진로불안척도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본 연구에서 전체 집단의 Cronbach alpha는 .91이

었고 표집 1의 alpha는 .92이었으며 표집 2의 alpha는 .90이었다.

청소년의 진로만족은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Lounsbury 등(2004)이 개발한 것을 정미예와 조남근(2012)이 번안한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로방향을 명확하게 느끼고 만족한다', '나는 지금까지 내 진로 진행 과정에 만족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집단의 Cronbach alpha는 .75이었으며 표집 1의 alpha는 .74이었으며 표집 2의 alpha는 .76이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Huebner(1994)이 개발한 척도를 박금주(1995)가 번안한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학교에 있는 게 좋다', '나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좋아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집단의 Cronbach alpha는 .84이었으며 표집 1의 alpha는 .85이었으며 표집 2의 alpha는 .84이었다.

진로의사결정만족도는 본 연구를 위해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하는 2개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내가 정한 진로 방향에 대해 만족한다', '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집단, 표집 1, 표집2 모두의 Cronbach alpha는 .80로 같았다.

분석 방법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SPSS 17.0을 이용하여 모든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신뢰

도 분석, 그리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 타당도 분석을 위해 본 검사의 실시인원 1,206명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들을 제외한 총 111명을 임의의 두 집단(표집 1: 555명, 표집 2: 556명)으로 홀수, 짝수 번호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구성개념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청소년 진로의사결정검사의 구성개념타당도 분석을 위해 표집 1 집단에 대해 직각회전인 베리맥스 기법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사각회전인 오블리민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9개 요인간의 상관을 검토한 결과 요인간 상관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아서 요인간에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각회전인 베리맥스 기법을 사용하였다. 9개 요인을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문항들이 여러 요인들과 중복되어 관련되어 있어서 요인구조의 해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항들을 제거하면서 요인분석을 여러 번 실행한 결과 34개 문항으로 구성된 9개 요인구조의 해석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9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65.2%를 설명하였다.

표 4에서 요인 1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진로의사결정을 어려워하여 최대한 미루고 피하는 것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라고 명명하였고 “진로의사결정 하는 것이 어려워서 연기한다” “진로의사결정을 피하고 싶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alpha계수는 .86이었다.

요인 2는 4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성에 맞을 것 같은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성흥미’이라고 명명하였고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적성/흥미가 중요하다” “나의 흥미에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한다” 등의 문항이 있다. 이 요인의 alpha계수는 .84였다.

요인 3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진로의사결정 시 가족이나 부모 등 타인의 기대나 희망사항을 먼저 고려하는 것을 대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타인만족’으로 명명하였고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족의 기대를 먼저 고려한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진로를 결정한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alpha계수는 .86이었다.

요인 4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진로의사결정 시 나라나 사회에 도움을 주거나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내재가치’라고 명명하였고 “진로의사결정을 하는데 타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로를 선택한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alpha계수는 .74이었다.

요인 5는 4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진로의사결정 시 연봉이나 안정성, 출세 등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외재가치’로 명명하였으며 “출세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한다” “연봉이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의사결정을 한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alpha계수는 .74이었다.

요인 6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멋있거나 인기가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유행’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진로를 선택한다” “겉보기에 멋있고 좋아 보이는 진로를 선택

표 4. 청소년진로의사결정검사 요인분석 결과(표집1, N=555, 요인 9개, 문항 34개)

문항	1	2	3	4	5	6	7	8	9	평균	표준편차
회피5	.81									3.08	1.627
회피4	.79									3.01	1.652
회피3	.78					.20			-.23	3.28	1.697
회피7	.77	-.21								3.02	1.605
적성흥미7		.82								5.60	1.271
적성흥미5		.82								5.65	1.258
적성흥미4		.77								5.68	1.323
적성흥미3		.72					.24			5.57	1.309
타인만족1			.83							3.51	1.540
타인만족3			.81							3.47	1.495
타인만족2			.78			.30				3.15	1.516
타인만족5	.23		.60						.32	3.37	1.437
내재가치4				.76			.25			3.87	1.482
내재가치9				.74					.33	3.82	1.536
내재가치3				.73						4.03	1.393
내재가치2	-.23			.61						4.02	1.548
외재가치1					.73		.21			5.29	1.392
외재가치5		.22			.72					5.13	1.440
외재가치9					.68	.41				4.30	1.492
외재가치8				.25	.67					4.35	1.426
유행3		-.20	.21			.67				2.81	1.420
유행4			.21			.63				3.17	1.522
유행5					.35	.62				3.79	1.310
유행1					.31	.60		.29		3.35	1.593
정보수집1							.73			4.39	1.562
정보수집2							.70			4.47	1.592
정보수집3		.33					.67			4.79	1.447
정보수집4		.33		.32			.52			4.70	1.328
운명3								.84		3.84	1.696
운명4								.80		4.05	1.635
운명6	.30		.25			.39		.45		3.11	1.591
직관6						.22			.77	3.55	1.554
직관9	.32							.26	.62	3.27	1.483
직관8	.48		.20			.21			.52	3.06	1.522
고유치	3.35	3.00	2.81	2.45	2.44	2.42	2.08	1.88	1.75	-	-
설명분산	9.86	8.82	8.26	7.22	7.17	7.12	6.11	5.53	5.14	-	-
누적분산	9.86	18.68	26.94	34.16	41.33	48.45	54.56	60.10	65.2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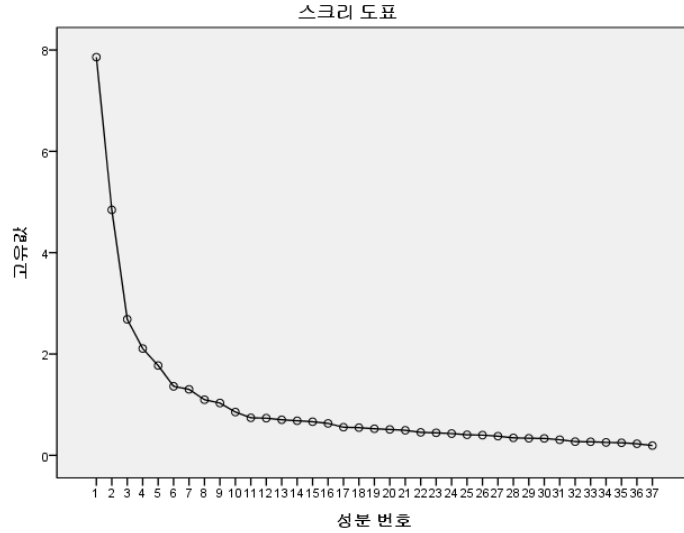


그림 1. 스크리 도표

한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alpha계수는 .71이었다.

요인 7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진로의사결정시 교사나 전문가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정보수집’으로 명명하였고 “진로의사결정을 하는데 전문가와의 상담이 유용하다”, “진로의사결정에

도움을 얻고자 주변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alpha계수는 .70이었다.

요인 8은 3개 문항을 포함하고 운명이 진로의사결정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며 미래진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운명’로 명명하였으며

표 5.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9개 요인 정의

진로의사결정 요인	정의
회피	진로의사결정을 어려워하여 최대한 미루고 피함
적성·흥미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함
타인만족	진로의사결정시 가족이나 부모 등 타인의 기대나 희망사항을 먼저 고려함
내재가치	진로의사결정시 나라나 사회에 도움을 주거나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
외재가치	진로의사결정시 연봉이나 안정성, 출세 등을 고려함
유행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멋있거나 인기가 있는 진로를 선택함
정보수집	진로의사결정시 교사나 전문가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함
운명	운명이 진로의사결정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며 미래진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함
직관	진로의사결정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하게 선택함

표 6. 청소년진로의사결정검사 요인분석 결과(표집2, N=556, 요인 9개, 문항 34개)

문항	1	2	3	4	5	6	7	8	9
회피3	.70		.23					.20	-.20
회피4	.79								
회피5	.81								
회피7	.80								
적성흥미3		.72				.29			
적성흥미4		.77							
적성흥미5		.84							
적성흥미7		.81							
타인만족1			.78						
타인만족2			.76					.23	
타인만족3	.21		.79						
타인만족5	.32		.68	.22					.31
외재가치1				.73					
외재가치5		.26		.68					
외재가치8				.70				.25	
외재가치9				.65				.42	
내재가치3					.73				
내재가치4					.76			.23	
내재가치9					.80				
내재가치2					.60				
정보수집1						.75			
정보수집2						.76			
정보수집3		.28				.70			
정보수집4		.24		.28	.28	.57		-.22	.25
운명3							.80		
운명4			.25				.74		
운명6	.34		.25				.57	.28	
유행1				.34			.31	.55	
유행3			.22				.32	.59	
유행4	.23		.21					.62	
유행5	.21			.55				.34	.21
직관6									.82
직관8	.56							.33	.30
직관9	.54			-.20					.25
고유치	3.70	3.01	2.86	2.76	2.55	2.29	2.02	1.96	1.27
설명분산	10.87	8.87	8.42	8.13	7.49	6.74	5.94	5.75	3.74
누적분산	10.87	19.74	28.16	36.29	43.77	50.51	56.45	62.20	65.95

“운명이 진로의사결정을 좌우한다” “운명과 행운은 나의 미래 진로에 많은 영향을 준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alpha계수는 .71이었다.

요인 9는 3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진로의사결정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 선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직관’이라 명명하였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을 한다” “진로의사결정을 빨리한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alpha계수는 .61이었다.

최종 도출된 9개 요인에 대한 정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구성개념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앞서 기술한 대로 전체 표집을 표집 1과 2로 나누어 표집 1의 자료를 통해 얻어진 요인 구조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 9개 요인 34개 문항을 표집 2에 그대로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도출한 9개요인 34문항에 대해 AMOS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제안했던 9개 요인간 상관을 가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2 는 유의하였다($X^2 = 1290.09^{**}$). 표 7에서 보듯이 부합지수인 RMSEA, CFI, TLI값을 검토한 결과, RMSEA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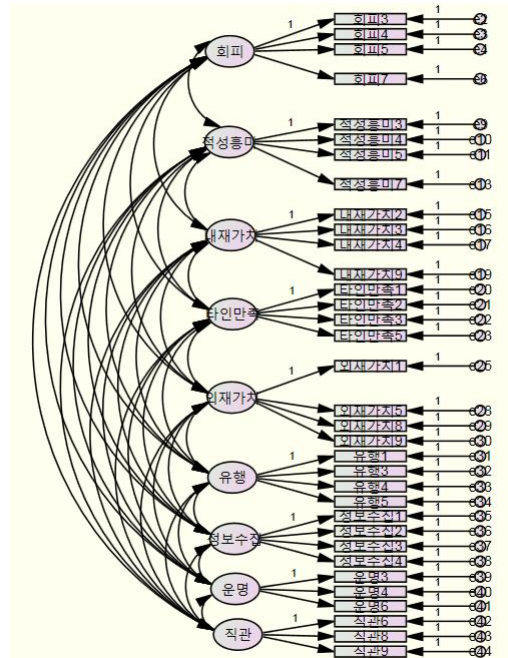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모형

.05로 .08이하이기에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으며, CFI는 .90, TLI는 .86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다른 모형과 비교하기 위하여 요인간 상관을 전혀 가정하지 않은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2 는 유의하였다($X^2 = 2915.94^{**}$). 하지만 CFI, TLI, RMSEA 값을 검토한 결과, CFI는 .70, TLI는 .68로 나타났으며,

표 7. 진로의사결정요인의 요인모형 비교

모형	X^2	df	CFI	TLI	RMSEA
연구 모형 (요인간 상관을 가정한 모형)	1290.09**	491	.90	.89	.05
대안모형 (요인간 상관을 가정하지 않은 모형)	2915.94**	527	.70	.68	.09
1요인 모형	-	-	1	-	.16

* $p < .05$, ** $p < .01$

RMSEA는 .09로 .08이상이기엔 적합도가 좋지 않았다. 또한 모든 요인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가정한 1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2=0$ 이었고, CFI는 1.0, TLI는 0으로 나타났으며, RMSEA는 .16으로 적합도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가 제시한 요인간 상관을 가정한 9개의 요인구조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가 제안했던 9개 요인간 상관을 가정한 연구 모델에서 각 요인의 요인 부하량과 표준화 요인 부하량을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산출된 검사의 전체 잠재요인과 대상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과 표준화 요인 부하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9개 하위요인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표집 2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 참조)가 표집 1에서의 결과와 동일한 9개 요인구조가 나타났으

며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도 표집 1에서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간 상관계수

표 8은 표집 2에서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요인간 상관은 높지 않았다. 유행과 운명이 .55로 가장 큰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행과 타인만족도 .54로 큰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회피는 적성 흥미와 정보수집과는 각각 -.34와 -.10의 부적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준거관련타당도

진로결정에 대한 선행연구들(박소영, 민병철, 2008; 신희경, 이종승, 2007; 전훈 외, 2010)은 개인의 진로가 정적인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을 통해 정보를 얻고, 본인에게 의미 있는 진로선택을

표 8. 최종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N=556)

요인	회피	적성흥미	타인만족	내재가치	외재가치	유행	정보수집	운명
회피	-							
적성흥미	-.34**	-						
타인만족	.47**	-.18**	-					
내재가치	.05	.22**	.34**	-				
외재가치	.23**	.23**	.39**	.25**	-			
유행	.46**	-.12**	.54**	.33**	.51**	-		
정보수집	-.10*	.46**	.14**	.40**	.26**	.10*	-	
운명	.38**	-.03	.45**	.26**	.38**	.55**	.16**	-
직관	.46**	-.12**	.39**	.24**	.15**	.46**	.04	.39**

* $p < .05$, ** $p < .01$

위한 준비행동과 확신을 해나가는 발달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조명희 외 2인(2013)은 진로발달을 진로결정과 진로성숙이라는 개념을 속에서 진로발달이 학교생활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횡단적뿐만 아니라 종단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로발달은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명희, 이해연, 이현우 외 3인, 2013).

따라서 본 검사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위에서 기술한 준거변인들 즉,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진로만족, 진로의사결정만족도, 진로불안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에서 보듯이 학교생활만족도는 적성흥미, 내재가치, 정보수집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회피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학교생활에 대

한 만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학업성취도는 적성흥미, 내재가치, 외재가치, 정보수집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며, 이는 진로에 대한 적성과 흥미가 높을수록 동기부여 및 정보가 많을수록 학업성취도도 높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명희 외 3인(2013)등의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진로만족은 적성흥미, 내재가치, 정보수집, 직관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적성에 맞을 것 같은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또한 진로의사결정 시 나라나 사회에 도움을 주거나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진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만족은 진로의사결정을 어려워하여 최대한 미루고 피하고자하는 회피 요인과는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따라서 적성흥미, 내재가치, 정보수집, 직관 및 회피 요인 등은 청소년의 진로만족과 높은 상

표 9. 진로의사결정요인과 준거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N=556)

요인	진로만족	진로의사결정 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진로불안감	학업성취도
회피	-.33**	-.46**	-.24**	.63**	-.06
적성흥미	.38**	.48**	.34**	-.32**	.12**
타인만족	-.03	-.13**	-.03	.38**	.07
내재가치	.23**	.16**	.29**	.07	.13**
외재가치	.06	.04	.07	.21**	.20**
유행	.03	-.07	-.02	.33**	.08
정보수집	.26**	.27**	.32**	-.05	.10*
운명	.05	-.05	-.05	.36**	-.01
직관	.12**	-.04	-.07	.35**	-.02

* $p < .05$, ** $p < .01$

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진로의사결정 요인들을 고려한 진로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로 만족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진로의사결정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적성흥미와 내재가치, 정보수집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진로에 대한 흥미가 높거나 내재가치 및 정보수집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수록 더 높은 진로의사결정만족도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의사결정만족도는 회피요인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진로의사결정을 어려워하여 최대한 미루고 피하고자 함으로써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만족이 더 낮아짐을 의미한다.

진로불안감에서는 회피와 가장 큰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63$), 타인만족, 외재가치, 유행, 운명, 직관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적성흥미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본 청소년 진로의사결정검사의 각 하위요인은 다양한 준거 가운데 하나 이상의

준거와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적성흥미가 모든 준거와 유의하게 관련되었고, 회피, 내재가치 및 정보수집 등도 네 개의 준거와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진로의사결정검사의 준거관련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렴타당도

진로의사결정요인과 유사한 개념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Gati 등(2012)의 진로의사결정요인은 정보수집, 정보처리, 통제소재, 노력투자, 지연행동, 결정속도, 타인자문, 타인의존, 타인만족, 이상직업, 타협의지, 직관사용 등의 12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Gati 등(2012)이 개발한 것으로 각 척도별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3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집 1의 Cronbach alpha는 .86 이었으며, 표집 2의 Cronbach alpha

표 10. 진로의사결정요인과 Gati 등의 진로의사결정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N=556)

요인	정보 수집	정보 처리	통제 소재	노력 투자	지연 행동	결정 속도	타인 자문	타인 의존	타인 만족	희망 직업	타협 의지	직관 사용
회피	-.15**	-.16**	.46**	-.14**	.81**	.42**	-.32**	.63**	.52**	-.29**	.37**	.44**
적성흥미	.41**	.51**	-.10*	.43**	-.31**	.16**	.15**	-.26**	-.18**	.61**	0.03	-0.03
타인만족	0.03	0.03	.47**	0.05	.40**	.22**	-0.08	.54**	.67**	-0.07	.35**	.34**
내재가치	.28**	.27**	.23**	.32**	0.08	.23**	-0.05	.20**	.31**	.28**	.13**	.24**
외재가치	.26**	.33**	.35**	.23**	.21**	.34**	-0.04	.31**	.45**	.23**	.42**	.26**
유행	0.06	.09*	.51**	.09*	.41**	.20**	-.26**	.48**	.61**	0.04	.34**	.49**
정보수집	.52**	.55**	.16**	.51**	-.09*	.23**	.15**	0.04	.16*	.40**	.15**	.11*
운명	.16**	.18**	.70**	.17**	.36**	.28**	-.25**	.45**	.48**	.09*	.37**	.48**
직관	0.05	0.06	.49**	.13**	.39**	.19**	-.39**	.47**	.47**	0.05	.24**	.59**

* $p < .05$, ** $p < .01$

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과 Gati 등(2012)의 진로 의사결정 요인과의 상관은 표 10에 나타나 있다. 두 요인이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수가 높게 나올수록 진로 의사결정검사의 수렴타당도가 높음을 의미하게 된다. 표 10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진로 의사결정 요인들이 Gati 등의 요인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특히, 요인 이름은 다르지만 요인 내용이 유사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본 검사의 회피 요인은 Gati 등의 지연행동($r=.81$)과 매우 높게 관련되었고, 타인만족 요인은 Gati 등의 타인만족($r=.67$)과 정보수집 요인은 Gati 등의 정보처리($r=.55$), 정보수집($r=.52$)과 높게 관련되었으며, 운명 요인은 Gati 등의 통제소재와 높은 상관($r=.70$)을 나타내었다. 또한 직관 요인도 Gati 등의 직관사용($r=.59$)과 높게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검사의 수렴타당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증분타당도

표 11은 준거로 제시되었던 진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Gati 등(2012)의 진로 의사결정 요인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 요인의 위계적 회귀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Gati 등

(2012)의 진로 의사결정 요인(직관사용, 정보수집, 결정속도, 타인자문, 타협의지, 이상직업, 타인만족, 통제소재, 지연행동, 노력투자, 타인 의존, 정보처리)은 진로만족도의 변량을 42.0%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 요인(내재가치, 외재가치, 정보수집, 직관, 운명, 적성흥미, 타인만족, 유행, 회피)을 추가한 결과, 유의수준 하에서 3.2%를 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증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 각 요인별로 적합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색 및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도 9개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준거 관련 타당도 분석에서는 진로만족, 진로 의사결정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진로불안감, 학업성취도를 준거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모든 하위요인들이 하나 이상의 준거와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며, 이 가운데 적성흥미, 정보수집, 회피, 그리고 내재가치가 4개 이상의 준거와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렴타당도 분석을 위해 Gati 등(2012)이 개발한 척도와 상관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들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648 ^a	.420	.407	1.04933	.420	32.723	12	543	.000
2	.672 ^b	.452	.430	1.02845	.032	3.475	9	534	.000

* $p < .05$, ** $p < .01$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의사결정검사 개발을 위해 기존 문헌 연구 및 중·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4개 요인을 도출하고, 130문항을 개발하였다.

중·고등학교 청소년 316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 분석과 문항 검토 과정을 통해 처음 도출한 14개 요인 가운데 타인자문, 타협의지, 미루기, 속도, 노력 정도 요인이 제거되어, 9개 요인과 53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검사의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1차 예비조사에서 분석된 문항에 추가적으로 보완된 문항들을 포함하여 9개 요인, 69문항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 233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9개 요인 61문항의 검사가 구성되었고, 구성된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적합하게 나타났다.

개발된 검사의 타당화를 위해 전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 1,206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신뢰도, 구성 개념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회피, 적성흥미, 타인만족, 내재가치, 외재가치, 유행, 정보수집, 운명, 직관의 9개 요인 34문항을 완성하였다. 회피 요인은 진로의사결정을 어려워하여 최대한 미루고 피함으로, 적성흥미 요인은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함으로, 타인만족 요인은 진로의사결정시 가족이나 부모 등 타인의 기대나 희망사항을 먼저 고려함으로, 내재가치 요인은 진로의사

결정시 나라나 사회에 도움을 주거나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외재가치 요인은 진로의사결정시 연봉이나 안정성, 출세 등을 고려함으로, 유행 요인은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멋있거나 인기가 있는 진로를 선택함으로, 정보수집 요인은 진로의사결정시 교사나 전문가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함으로, 운명 요인은 운명이 진로의사결정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며 미래진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함으로, 직관 요인은 진로의사결정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하게 선택함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동시에 하나의 유형보다는 더 많은 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전 연구(Driver et al., 1990; Harren, 1979)의 제안을 지지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로의사결정 간 행동 패턴 경향성을 가지고 이를 조합할 수 있다(Payne et al., 1992; Scott & Bruce, 1995; Singh & Geenhaus, 2004)는 주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특성과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요인들이 나왔고, 그 결과는 단일한 의사결정유형만 제시한 기존의 의사결정유형 검사의 한계를 보완한 다양한 측면들이 반영되었다.

본 청소년 진로의사결정검사를 외국의 Gati 등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 프로파일(Career Decision Making Profiles: CDMP) 검사와 비교해보면 회피, 타인만족, 정보수집, 운명, 직관 요인은 CDMP의 지연행동, 타인의존, 타인만족, 정보처리, 정보수집, 통제소재, 직관사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적성흥미, 내재가치, 외재가치, 유행 요인은 추가된 요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용 진로의사결정검사를 도출할 때 각 문화와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 따라 다른 요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CDMP의 희망직업 요인과 본 척도의 적성흥미 요인의 상관이 높게 나왔으며, 이는 두 요인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에게 맞는 이상적인 직업 탐색에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적성흥미라는 요인이 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 채동식(2007)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요인은 본인의 적성과 성적, 직업전망, 학습내용 등이었다. 청소년은 성숙함에 따라 자아개념이 확립되고, 자신의 역할, 현실성, 흥미, 능력, 가치 등을 자신의 자아개념 속에 통합할 수 있게 되며, 이런 과정은 그대로 그들의 직업화 과정에도 적용된다(김충기, 1987).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2014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2013년 13~24세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적성, 흥미(34.2%), 수입(27.0%), 안정성(2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세 청소년의 경우 수입이 29.2%로 가장 높은 반면, 13~19세 청소년의 경우 적성, 흥미가 38.1%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문화권이 아닌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타인을 돕는 사회봉사와 애국 등에 가치를 높게 둔다. 이러한 이유로 내재가치 요인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본인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결정하기보다는 부모가 바라는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런데 부모가 희망하는 직업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인정이나 더 나은 조건의 직업을 선호하므로 이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외재가치 요인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도 가치관과 진로 의사결정이 상호관련성을 보였다(최용재, 2015). 그리고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미디어의 영향 등 유행에 민감한 시기이다. Gati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이고 본 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검사이므로 유행이라는 요인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각 요인별로 적합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탐색 및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9개 요인구조가 확인되었다.

준거관련 타당도 분석에서는 진로만족, 진로 의사결정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진로불안감, 학업성취도를 준거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수연과 김혜원(2012)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진로 의사결정유형이 합리적일수록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가 낮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진로 의사결정유형이 직관적일수록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가 높았다. 한편 진로탐색 집단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적성, 흥미 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전망해 보게 하고, 학교생활의 의미를 찾게 하며, 그 결과 학업성취동기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켰다(김미나, 2001; 김혜령, 1993; 임선아, 2012). 분석결과 모든 하위요인들이 하나 이상의 준거와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며, 이 가운데 적성흥미, 정보수집, 회피, 그리고 내재가치가 4개 이상의 준거와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또한 수렴타당도 분석을 위해 Gati 등(2012)이 개발한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요인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내의 진로 의사결정 요인들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청소년 진로 의사결정검사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진로의사결정은 진로발달 연구에서 진로결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어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진로의사결정유형 검사는 Harren(1984)의 이론에 근거한 진로의사결정 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를 우리 문화에 맞게 번안·수정한 것이다. 이 검사는 진로의사결정 시 개인차를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 중 무엇이 지배적인지를 측정하여 동질 집단으로 분류하였지만 다양한 진로의사결정 상황이나 심리적 상태 등 개인 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기존 검사의 방식을 넘어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방식을 살펴보고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의사결정 요인들을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총 9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검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 진로의사결정검사는 이전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따라 범주화하는 접근 방식보다 좀 더 발전적인 실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진로지도 및 진로코칭(상담) 장면에서 Harren의 진로의사결정 척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 자신의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제시되다 보니 검사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학교 진로교육 장면에서 합리적인 유형을 강조하며 직관형과 의존형 학생들을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합리형의 진로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본 검사를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진로의사결정 요인을 측정하여 살펴볼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이 더 나은 진로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끄는 데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진로의사결정 요인에 따라 자신의 진로의사결정 프로파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더 적응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진로의사결정 단계에서 개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등 기존의 유형론적 접근 방식과는 차별화된 진로지도 및 진로코칭(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사회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진로의사결정 검사를 개발했다는 데 있다. Harren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척도(ACDM)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소개되면서 비판이나 검증 없이 번안·수정되어 사용하여 왔으며 연구 대상 또한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외국의 진로의사결정검사를 분석하여 우리 문화와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진로결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실제로 적용 가능하도록 접근했다는 점이다. 적성흥미, 내재가치, 외재가치, 유행 요인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 지 알 수 있는 좋은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검사에 대한 서양의 선행 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해 볼 때, 기존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검사에 대한 유사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방형 설문을 통해 국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의사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체계화 작업을 하였다. 개방형 설문을 하여 한국의 청소년들이 진로의사결정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기초부터 분석하기 시작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고유한 진로의사결정 요인을 찾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향후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검사에 대한 국제적 비교에도 활용될 수 있는

연구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청소년 진로 의사결정검사는 실제적인 청소년 진로지도 및 진로코칭(상담)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기존의 3가지 진로 의사결정 유형 구분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시킨 측면이 크다. 기존의 진로지도 및 진로코칭(상담) 장면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체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청소년 진로 의사결정검사는 개인의 진로 의사결정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쓰는 진로 의사결정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진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 선택에 도움도 가능하다. 즉, 현명한 진로결정을 위해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내용이나 성격, 중요도, 시급성 등에 따라 자신의 진로 의사결정 요인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각 진로 의사결정 요인별 진로결정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진로코치나 상담자에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열린 시각의 확장으로 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을 촉진시키는 맞춤형 처치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진로 의사결정검사가 이전의 Harren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척도(ACDM)와 같은 유형론적 접근 방식보다 개인의 진로 의사결정 방식을 더 잘 나타내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개인 내의 진로 의사결정 요인과 이전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비교함으로써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Gati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척도와 비교하여 본 청소년 진로 의사

결정검사가 얼마나 더 많은 설명력을 갖는지 증분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진로 의사결정검사의 적응력에 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 의사결정 유형 검사에서는 합리형과 직관형이 의존형보다 더 적응적이라는 주장이 있다(Singh & Greenhaus, 2004). 청소년 진로 의사결정검사 또한 진로결정 과정에 있어 진전이나 진로 의사결정의 적응력을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 내의 진로 의사결정 요인들 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더 적응적인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요인들 간 어떠한 조합이 가장 적응적인지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으로 한정하여 검사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아동이나 성인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초·중학생 또는 대학생과 같은 성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들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도출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호경 (2003). 고등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향자 (1992). 진로 의사결정 모형의 문헌적 고찰. *인간이해*, 13, 3-19.
- 고향자 (2000).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 및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1), 109-124.
- 교육과학기술부 (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4. 교양.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진로와 직업.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 김나영, (2009).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나 (2001).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업성취동기와 직업흥미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성남, 정철영 (2005). 전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2), 139-159.
- 김송환 (1996). 고등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수연, 김혜원 (2012). 남녀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불안이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1). 186
- 김중운, 윤명희, 박성실 (2009). 여대생의 성격 유형 및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2(4), 195-217.
- 김지영 (2001). 진로의사결정 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충기 (1987).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김혜령 (1993).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학습동기 유발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숙경, 이자영, 박희락, 김동현, 이미경, 이상민 (2008).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역할. 한국교육학연구, 14(1), 205-223.
- 박진희 (2008).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미결정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변은주 (1999).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진로미결정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우석 (1994).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순화, 강승희, 윤경미 (2004).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수준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5(4), 1111-1123.
- 유정이, 이영선, 박정민 (2003). 청소년의 진로 불안 감소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원창 (2006).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대학진학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33-650.
- 임선아 (2012).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과 부모의 진로선택 지지, 진로선택 역경극복 의

- 지가 학업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27), 221-238
- 장기명 (1998).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 진로결정수준 ·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학생지도연구*, 19, 101-132.
- 전경애 (2005).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유형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나 (2011). 진로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관여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예, 조남근 (2011).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서 본 대학생의 진로만족 모형. *청소년학연구*, 18(10), 295-316.
- 채동식 (2007).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실태 분석.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선이 (1991). 정보량과 인지복잡성에 따른 의사결정성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용재 (2015). 미용전공대학생의 가치관,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가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태진 (2004). 상호의존형 진로 의사결정 유형 척도의 개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 *상담학연구*, 5(3), 647-666.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 통계. 한국진로교육학회 (199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허정철 (200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8), 433-441.
- 홍성욱 (2008).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학결정수준, 진학준비행동 유형에 따른 불안 및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차이.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rroba, T. (1977). Styles of decision making and their use: An empir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5, 149-158.
- Arroba, T. (1978). Decision-making style as a function of occupational group, decision content,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1, 219-226.
- Blustein, D. L. (1987). Decision-making styles and vocational maturity: An alterna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61-71.
- Chartrand, J. M., Rose, M. L., Elliott, T. R., Marmarosh, C., & Caldwell, S. (1993). Peeling back the onion: Personality, problem solv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correlate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 66.
- Di Fabio, A., & Bernaud, J. L. (2008). The help-seeking in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2, 60-66.
- Dinkelage, L., B. (1968). *Decision strategies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Driver, M. J., Brousseau, K. R., & Hunsaker, P. L. (1990). *The dynamic decision maker*: Jossey-Bass Publishers.
- Gati, I. (1986). Making career decisions: A sequential elimination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4), 408-417.
- Gati, I., Landman, S., Davidovitch, S., Asulin-Peretz, L., & Gadassi, R. (2010). From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to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 277-291.
- Gati, I., Gadassi, R., Mashiah-Cohen, R. (2012).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vs. styles: Convergent and incremental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1), 2-16.
- Gelatt, H. (1989). Positive uncertainty: A new decision-making framework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52-256.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arren, V. A. (1984).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 149-158.
- Janis, K. L. & Mann, L. (1977). *Decision making a psychological analysis of conflict choice and commitment*. NY: The Free Press.
- Jepsen, D. A. (1974a). Vocational decision-making patterns among noncollege-aspiring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 283-297.
- Jepsen, D. A. (1974b). Vocational decision-making strategy-types: An exploratory study.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3, 17-23.
- Johnson, R. H. (1978). Individual styles of decision making: A theoretical model for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6, 530-536.
- Krieshok, T. S. (1998). An Anti-Introspectivist View of Career Decision Making.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210-229.
- Krieshok, T. S., Black, M. D., & McKay, R. A. (2009). Career decision making: The limits of rationality and the abundance of non-conscious proces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275-290.
- Krumboltz, J. D. (1979). The Effect of Alternative Career Decision-Making Strategies on the Quality of Resulting Decisions. Final Report.
- Krumboltz, J. D., Kinnier, R. T., Rude, S. S., Scherba, D. S., & Hamel, D. A. (1986). Teaching a rational approach to career decision making: Who benefits mos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9, 1-6.
- Lounsbury, J. W., Park, S. -H., Sundstrom, E., Williamson, J. M. & Pemberton, A. E. (2004). Personality, Career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est of a Directional Mode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4), 395-406.
- Mann, L., Harmoni, R., & Power, C. (1989). Adolescent decision making: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Journal of Adolescence*, 12, 265-278.
- Mau, W. C. (1995). Decision-making style as a predictor of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and treatment gai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89-99.
- Mau, W. C., & Jepsen, D. A. (1992). Effects of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in using formal decision-making strategies to choose a college maj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2), 185-192.
- Mitchell, K. E., Levin, A.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115-124.
- Payne, J. W., Bettman, J. R., & Johnson, E. J. (1992). Behavioral decision research: A constructive processing perspective. *Annual*

- review of psychology*, 43, 87-131.
- Phillips, S. D. (1997). Toward an expanded definition of adaptive decision mak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75-287.
- Phillips, S. D., & Paziienza, N. J., & Walsh, D. J. (1984). Decision making styles and progress in occupation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 96-105.
- Phillips, S. D., & Strohmer, D. C. (1982). Decision making style and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 215-222.
- Rubinton, N. (1980). Instruction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decision-mak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81-588.
- Sadler-Smith, E., & Shefy, E. (2004). The intuitive executive: Understanding and applying 'gut feel' in decision-making. *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8(4), 76-91.
- Sagiv, L. (1999). Searching for tools versus asking for answers: A taxonomy of counselee behavioral styles during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7, 19-34.
- Sanz de Acedo Lizarraga, M. L., Sanz de Acedo Baquedano, M. T., Soria Oliver, M., & Closas, A.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decision-making questionnair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7, 357-373.
- Scherba, D. S. (1979). *The relationship of decision-making style to decision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Scott, S. G., & Bruce, R. A. (1995). Decision-making style: the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 new measure. *Education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5(5), 818-831.
- Singh, R., & Greenhaus, J. H. (2004). The 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trategies and person-job fit: A study of job change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 198-221.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원고접수일 : 2015. 09. 14.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1. 25.

최종게재결정일 : 2016. 02. 2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Decision Making Profiles-Youth

Daesun Kim Jiyoun Kang Jaehee Jung Kinyeon Kim Jinkook Tak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areer Decision Making Profiles-Youth(CDMP-Youth) in Korea and to validate the scale. First, preliminary 130 items with 14 factors were obtained based on a number of ways. Second, These items were administered to 316 adolescents. Based on the first preliminary study, 53 items with 9 factors were obtained. These items were administered to 233 adolescents. Based on the second preliminary study, 61 items with 9 factors were obtained. Third, These items were administered to 1,206 adolescents, and finally 34 items with 9 factors were obtained. The total group was divided into two sub-groups in order to check cross-validity of the scale. The results of factor analyses showed that the 9 factor model with 34 items were satisfactory. The reliabilities of 9 factors were also satisfactory. These career decision making profiles factor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criteria such as career satisfaction as well as grade, supporting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scale. Also these facto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actors of the Career Decision Making Profiles developed by Gati et al (2010), supporting convergent validity of the scale. Lastl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areer Decision making, Career Decision making Profiles, career satisfaction, reliability, construct validity, criterion-related validity